

‘마린스키 왕자’ 김기민 ‘백조의 호수’로 고국 무대 올라 “발레는 무대 위 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글 임수정 기자

"높은 점프나 빠른 회전 등과 같은 단순 테크닉으로 이곳 마린스키 발레단의 주역이 되긴 어렵습니다. 요즘 무용수들은 다들 잘 돌고 잘 뛰기 때문이죠. 무대 위의 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최정상 발레단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기민(25)은 "6년 동안 마린스키 극장 무대에 올랐지만, 아직도 긴장되고 흥분되며 공연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또 공연하고 싶은 무대가 바로 이곳 마린스키"라고 말했다.

김기민은 234년 역사의 콧대 높기로 유명한 마린스키 발레단에 동양인 최초로 입단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입단 두 달 만에 주역에 발탁된 그는 2015년 수석무용수 자리까지 꿰차며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한국인 발레리노 최초로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상을 거머쥐며 다시 국내외 무용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탄력적인 점프와 긴 체공 시간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쟁력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사실 잘 돌고 잘 뛰는 건 무용수들이 갖춰야 할 기초 요건"이라며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표현을 해낼지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의 탄탄한 테크닉과 풍부한 표현력은 현지에서도 상당한 팬덤을 구축했다.

"처음 입단했을 때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지금은 친한 동료들과 제 춤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극장 동료, 관계자들이 저를 '외부에서 온 무용수'가 아닌 '우리 단



사진 / 서울콘서트메니지먼트 제공



김기민

원'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를 마린스키 발레단 중심에 우뚝 세운 것은 역시 지독한 연습이었다.

그가 졸업한 예원학교의 경비 아저씨는 연습을 끝낼 줄 모르는 그를 기다리다 지쳐 아예 열쇠를 주고 "아침에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였고, 입단 초기 마린스키

발레단에서도 그의 퇴근 시간은 늘 "연습실 문이 닫힐 때"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최근 1년간 부상으로 공연을 쉬게 된 뒤 몸에 휴식을 주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워낙 연습량과 공연 횟수가 많은 발레단입니다. 제가 입단한 이래 20여 개 레퍼토리로 200여 회의 공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과도하게 할 경우 또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휴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쉬면서 공연에 관한 음악을 듣고, 제가 출연했던 영상이나 자료를 보기도 해요."

그는 여전히 마린스키 발레단을 "꿈의 무대"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무대가 바로 이곳"이라며 "제가 춤을 추는 매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린스키 무용수로서 세계 유수의 많은 극장과 발레단에 초청돼 공연했습니다만, 마린스키만큼 클래식 전막 발레를 아름답게 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상, 무대 디자인, 군무부터 주역 무용수까지의 기량, 오케스트라 등 모든 것의 조합이 가장 완벽한 발레단은 역시 마린스키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는 11월 9~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로 오랜만에 고국 팬들과 만났다.

할리우드 영화·드라마 배우, 연출가, 성우, 극작가, 스피치 코치, 대학교수.

한 가지도 쉽지 않은 직업을 여섯 가지나 가진 팔방미인 재미동포가 있다. 재미동포재단 주최 '제20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에스더 채(46·한국명 채경주)가 그 주인공.

채 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양한 일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서로 다른 일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창의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며 "현실에 안주하기 싫어 도전해오다 보니 여러 타이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오리건주 유진시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 한국으로 들어와 초·중·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한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할리우드 문을 두드렸다. 미시간대에서 연극이론 석사학위를 받았고, 예일대 드라마스쿨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등 이론적 지식도 탄탄한 배우다.

미국 NBC의 의학드라마 'ER', CBS의 범죄 수사드라마 'NCIS' 등에서 각각 기자와 정보요원, 변호사로 출연했다. 한류아시아스타상(2007),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선구자상(2010)을 수상했고, 2009년부터는 기술·엔터테인먼트·디자인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세계적 비영리재단인 TED의 혁신펠로우로 활동하고 있다.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1세대인 그는 "동양계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할리우드"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려면 배우 이병헌처럼 확고하게 정상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밀바닥에서부터 도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지인보다 더 영어표현력이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수없이 연습한 덕분에 성우로도 인정받게 됐고,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면서 자신을 알리는 스피치를 가다듬다 보니 남을 도울 수 있는 스피치 코치라는 직업도 갖게 됐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채 씨는 직접 각본을 쓰고 연기를 한 1인 4역의 모노드라마인 '쏘 더 애로우 플라이스'(So The Arrow Flies)를 뉴욕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했고, 한국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연극

에스더 채

축제에도 초청됐다. 이 연극은 2014년 미국에서 책으로 나왔고 2015년에는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됐다.

그는 올해부터 에머슨대 연기학과 교수로 임명돼 졸업반 학생들에게 영상연기를 가르치고 있다. 내년 2월 개봉예정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에 성우로 출연했다.

‘직업이 여섯 개’ 재미동포 에스더 채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최선의 길”

글 강성철 기자

트와이스, NHK 연말가요축제 ‘홍백가합전’ 출연

글 박수윤 기자

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가요 축제인 NHK 홍백가합전(紅白歌合戦)에 출연한다.

일본 최대 공영 방송인 NHK는 최근 도쿄 시부야 본사에서 제68회 홍백가합전 제작발표회를 열고 출연 가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2월 31일 방영되는 홍백가합전에는 엑스재팬, 아라시, 칸자니 에이트, AKB48, 케야 키자카46, 노기자카46 등 일본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한국 그룹 중에서는 트와이스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K팝 스타가 홍백가합전 무대에서는 건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트와이스는 "일본 데뷔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홍백가합전에 출연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일본인 멤버인 사니는 "홍백가합전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즐겨본 화려한 프로그램"이라며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른 가수들을 보면서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트와이스는 한동안 주춤하던 일본 내 한류에 다시 불을 지핀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6월 28일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발표한 베스트앨범 '#TWICE'는 판매량 27만 장을 기록해 일본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으로

인정받았다. 10월 18일 일본에서 출시한 싱글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도 최근 25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

동방신기(2008~2009년), 보아(2002~2007년), 김연자(2001년) 등 한국 가수들은 2000년대 들어 9년 연속(2001~2009년) 홍백가합전 무대에 올랐다. 2010년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K팝 인기가 정점을 찍은 2011년에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등 총 3팀이 출연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 영향으로 일본 내의 한류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한국 가수는 2012년부터 5년 연속 홍백가합전 출전자 명단에서 빠졌다. ①



트와이스